

브라질,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

1. 2012년 브라질 예상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

- 2012년 5월 브라질 재무장관(기도 만테가)은 2012년 브라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.5%에서 4%로 낮출 것임을 발표
 - 하지만 만테가 장관은 글로벌 위기 악화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1% 가량 둔화할 수 있다는 IMF 보고서에도 불구하고, 브라질의 금년 경제성장률은 11년(2.7%)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주장함.
- 브라질은 2010년 7.6% 성장했으나 2011년 2.7%에 그쳤고, OECD는 2012년 경제성장률을 3.2%로 전망 발표함.
 - 또한, 골드만삭스 등 민간 컨설팅 회사들은 잇단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2012년 경제성장률이 3%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

2. 추가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

□ 2012년 4월 1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

- 브라질 정부는 지난 4월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200억 헤알(약 12조 3,300억 원)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.
- 이는 글로벌 경제 침체와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공공과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며, 브라질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2011년 2.7%에 그친 GDP 경제성장률을 2012년에는 4.5%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었음.



□ 추가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

- 2011년 5월 브라질 정부는 13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안을 내용으로 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으며,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27억 헤알(약 1조 5천억원)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.
 - 브라질 정부는 기존의 경기부양책이 2012년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자동차 관련 세금과 소비자 대출금리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임.
 - 이번 조치로 수입차를 포함해 배기량 1천cc이하 자동차의 판매가격에 붙는 공산품세(IPI)가 면제되고 할부판매 기간이 연장되며, 트럭과 버스 구매를 위한 대출금리도 인하되어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.

□ 추가 경기부양책에 따라 브라질 자동차 판매량 회복 기대

- 브라질 정부의 감세 조치에 따라 현대차를 비롯해 피아트, 포드, 르노, JAC 등 브라질 진출 다국적 자동차 업체들은 일제히 판매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함.
 - 판매가격 인하폭은 4.9~10.4%가 될 것으로 보이며, 업체들은 2008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재고량을 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분석됨.
 - 브라질 자동차판매협회(FENABRAVE)는 앞으로 2개월 안에 재고량이 적정 수준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였고, 브라질 자동차산업협회(ANFAVEA)도 자동차 판매가격 인하와 할부 이자율 하락 등에 힘입어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 보다 5.5% 가량 늘어난 38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.

3. 향후 전망 및 시사점

□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2012 목표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성 증가

- 2012년 4차재 지속적인 금리인하,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,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 및 2014년 월드컵, 2016년 올림픽 등 국제행사 추진에 따른 투자 및 정부 지출 확대 전망으로 2012년 목표 경제성장률인 4.5%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.



- 그러나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, 중간재,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,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.

- 경기부양책에 따른 내수 진작으로 향후 대 브라질 수출량 증가 예상
 - 2012년 1~5월 대 브라질 수출량은 작년 동월 대비 3.7억 달러 감소(△7.3%)한 4,819백만 달러이며, 수입량은 작년 동월 대비 3.2억 달러 증가(13.4%)한 2,663백만 달러임.
 - 그러나 2차례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내수 진작으로 브라질 경기가 회복되어 향후 브라질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【방 인 식】